

지방의회 의정비 내리기 '시늉만'

광주·전남 월정수당 줄였지만 정부 기준액 보다 높아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줄였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기준액)보다는 여전히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생색내기성 의정비 책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광주지역의 경우 올해보다 7.4% 인상됐고 전남지역에서는 5.7%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에 비해서는 광주지역은 8.7% 낮은 반면 전남지역은 오히려 4.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시의원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4.7%(4천855만원) 인상했고, 기초의원인 경우 동구 11.9%(3천108만원), 서구 6.6%(3천58만원), 남구 0.3%(2천919만원), 북구 6.5%(3천116만원), 광산구 12.1%(3천296만원) 인상했다.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의 의정비는 행안부 기준액과 비교할 경우 시의회는 5.0%, 동구 4.8%, 서구 12.4%, 남

구 12.1%, 북구 9.2%, 광산구 5.0% 낮은 수치다.

광주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올해보다 인상됐지만 행안부의 기준액,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평균 수준에 비해 워낙 낮았던 탓에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남지역은 내년도 의정비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워낙 큰 폭으로 의정비를 인상한데다 정부가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제시한 기준액보다 높다는 점에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내년도 의정비

를 올해와 같은 4천748만원으로 동결했으나 이는 행안부 기준액(4천442만원)보다 306만원(6.9%) 높은 것이다.

특히 전남도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결을 결정, 행안부가 기준액을 제시하면서 기준액의 ±20% 범위에 들 경우 심의위 구성 없이 동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외 22개 시·군 의회도 행안부 기준액보다 평균 3.9% 높은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할 것으로 집계됐다. 광양시의회가 행안부 기준액보다 11.1%(3천672만원) 높은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해 가장 높은 인상을 기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8대 첫 정기국회 '낙제점' 폐회

정쟁으로 경제·민생법안 뒷전... 감세법안 처리 무산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일 10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정기국회는 민의를 모아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구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부담수령 국정조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정기국회 100일을 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감세법안을 처리할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여야는 10일부터 30일간 임시국

회를 열어 예산안과 경제·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정쟁현안에 대한 이견이 커 임시국회 역시 '생산국회'가 될지 미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2월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짧은 심사기간으로 부실·졸속 심사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고령자 주거안정법, 불법채권추심행위 방지법 등 민생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정쟁에 밀려 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국가재정법 등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제대로 된 공청회나 청문회 한번 개최되지 않아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정원법, 사이버 모욕

죄 등 이법 법안을 놓고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10일부터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한바탕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기력 야당'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대안 야당'으로서의 경제 위기 국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과반이 넘는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할 만한 '강한 야당'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움직이기 보다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가 더 격정'이라는 푸념이 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예산안 막판 줄다리기

계수조정위 증액-감액 공방...민주 '小小委' 운영 반대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 과정에서 불꽃 튀는 '증액-감액' 공방이 벌어지는 등 여야는 9일에도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를 이어갔다.

소위는 지난 8일까지 감액심사를 벌여 1조1천억~1조2천억원대 삭감에 잠정합의했지만 그 이상의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인기 민주당 예산결산위원장과 민주당 측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조원의 '문제 예산'을 삭감하고 8조3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특정지역(포항 등)에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돼 지역간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큰 지역편중 사업 ▲지나해 대비 과



홍준표(앞줄 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오른쪽)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의 도중 서로 만나 민주노동당의 강력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새해 예산안 관련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연희뉴스

여야는 오는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견이 있는 쟁점예산을 다루는 2개의 소소위(小小委)를 구성, 속도를 낸다는데 8일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민주당이 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에 따라 막판 예산안 심사에 진통도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민 10명 중 8명 "MB정부, 호남 홀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조사

광주·전남 지역민 10명 중 8명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와 사단법인 장산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7%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79.5%가 이같이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서는 응답자의 67.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63.2%는 영호남 갈등보다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1%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이명박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민주당이 제 1야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2%에 그쳤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3%에 달해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광주만 놓고 볼 때는 긍정 대 부정의 32%대 6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민주당의 지지율 정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체성 확립 실패'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책 비전 능력의 부재' 20.7%, '과거 열린우리당의 부정적 이미지' 16.7%, '지도부의 지도력 문제' 14.6%, '유망한 정치인 부재' 8.6%의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곽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곽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아발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특강 사전예약접수중
개강: 1월 2일(기본 이론 2개월완성)

교과교육학 학습방법론 강의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눈술 참석지도 실시

똑똑한 강의 선택!
한 번 배워 평생가는
학습방법론 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동파
곽내영 선생 저자직강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ie.net

에듀뷰넷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바뀐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곽내영고시학원 수강문의 **광주 (대)529-009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매월 1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기초 12월·기본서 1월 2일부터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행정고시학원**

목표점 개원 12월18일 공개설명회
오전 10시~12시
목포대항지구 대성학원 건물 3층
(061)277-8111

서울점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화정·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롭빌딩 4층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저렴한광고비
뛰어난 광고효과

직통전화:227-9600
FAX:227-9500

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매입·매매·임대·전세·부동산

광고접수 및 문의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강!!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7.9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중·해교세관법검정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건호지방술

'09년 시험안내
시행일자: 9월 4일 11월 7일 12월 25일 시행
채용인원: 국가직 3,200명 지방직 4,242명
시험장: 908, 경기 685, 전남 303, 광주 119, 전북 206명

12월15일(주,아)개강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90만원(교재17만원포함)
주·야간반+기초(美·圖)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신함.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www.mdgosl.co.kr ☎ 222-4560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학자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